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5회 롯데 오픈’ 우승자 박혜준 관련 기록 및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5회 롯데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일(목) ~ 7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[미국(OUT) / 오스트랄아시아(IN)]  |
| 4 | 주 최 | 롯데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이가영, 고지우, 이예원, 최혜진, 김효주, 박현경, 이동은, 홍정민, 방신실, 노승희김민선7, 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최예림, 성유진, 장하나, 이정민, 황유민, 이소영김시현, 정지효 등[‘제15회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’ 상위자격 출전자]- 프로: 고지원, 김나영2, 김윤경2, 박예지, 백소원, 서하영, 손연정, 송가은,  송민교, 신지원2, 심지연, 양진서, 장은수, 정세진, 정지현, 허윤서 / 16명- 아마추어: 안윤주(A), 양윤서(A), 최정원(A) / 3명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박혜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(68-67-66-70) 우승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8>

**[대회 특이사항]**

롯데에서 주최하는 골프 대회(LPGA대회 포함) 최초로 롯데그룹 회장이 시상식에 직접 참석

**[박혜준 주요 기록]**

 **- KLPGA 정규투어 첫 우승(73번째 참가 대회에서 우승)**

**- 2025시즌 네 번째 생애 첫 우승자**

 **\* 김민주**

 **\* 김민선7**

 **\* 이동은**

 **\* 박혜준**

**[박혜준 타이틀 순위]**

**-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22위(105점)**

**- 상금 순위 12위(329,494,856원)**

**\*2025시즌 기록**



**\*개인 기록**

****

**[코멘트-대회조직위 제공]**

**경기 소감 및 우승 소감?**
어제 샷 감이 좋아 ‘샷을 믿고 기다리겠다’고 했는데, 막상 오늘은 샷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. 샷만 믿고 플레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퍼트 연습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바라던 첫 승을 팬, 가족, 관계자분들과 함께해 더없이 행복하다.

**호주 유학 후 KLPGA투어 초반에 적응이 쉽지 않았을 텐데,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나?**
예상보다 정규투어에 빠르게 진출해서 놀랐었는데, 그 후 성적은 만족스럽지 않았다. 선수도 잘 모르고, 문화도 낯설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 같다. 드림투어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연스레 극복했다.

**마지막 홀에서 노승희 선수가 이글을 기록했다. 그 순간과 우승 퍼트 때 심정은? 우승 소감은 미리 준비했는지?**
이글 장면을 보고도 타수 차가 있었고 내 버디 퍼트가 아주 짧아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. ‘수만 번 쳐 본 거리니까 편하게 치자’는 생각뿐이었다. 우승 소감은 미리 준비하진 않았고,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.

**준우승 두 번을 경험했는데, 좌절감은 없었는가?**
두 번 모두 선두와 타수 차가 컸다. 우승을 못 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좌절하지 않았다. 그 경험이 오늘 우승에 필요한 인내심을 키워줬다.

**우승 부상으로 롯데챔피언십 출전권을 받았다. 계획이 있나?**
당장 LPGA투어에 도전한다는 생각보다는 경험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출전하겠다.

**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?**
명예의 전당 입성이 궁극적 목표다.